

윤리적 성향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미치는 영향연구

김미량[†] · 김태웅^{††}

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이러한 행위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대학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의 윤리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을 토대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불법복제 적발시 예상되는 처벌의 심각성 등의 연구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95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 결과, 처벌의 심각성은 주관적 규범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요인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인식 설문이론을 토대로 하는 상대주의 개념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계수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제어 : 윤리적 성향,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합리적 행동이론, 주관적 규범, 태도, 처벌의 심각성, 상대주의

A Study on the Effect of Ethical Orientation on Digital Piracy

Mi Ryang Kim[†] · Tae Ung Kim^{††}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committing digital piracy in university settings. Using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including intention to commit digital piracy,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fear of legal consequences, is developed. Results from 295 survey responses indicate that fear of legal consequences affect the subjective norm and the attitude, which in turn influence the intention to commit digital piracy. In addition, relativism based on EPQ(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 is introduced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relative influences of path coefficients are investigated and implications from findings are also discussed.

Keywords : Ethical Orientation, Digital Piracy, Theory of Reasoned Behavior, Subjective Norm, Attitude, Fear of Legal Consequences, Relativism

[†] 중신회원: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 정 회 원: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5년 9월 28일, 심사완료: 2015년 12월 23일, 게재확정: 2016년 1월 13일

1. 서론

스마트폰, SNS, IoT,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관련기술의 발전은 게임, 모바일, 이러닝 등과 같은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 소리, 영상 등의 내용물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콘텐츠[1][2]의 유통 및 홍보가 편리해졌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소비자시장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속도를 가속화하여 콘텐츠 산업 피해규모는 더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불법복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제작·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과 같은 콘텐츠의 불법적인 재생산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도 콘텐츠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014년 7월 정부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 이후 국가 주도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 및 교육의 계획들이 제시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및 이용기반 확산 방안이 발표되는 등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공공연히 일어나는 불법 복제천국의 오명을 안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09년 41%, 2011년 40%, 2013년 38%, 2015년 역시 38%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다가 최근 그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2015년 현재 아시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62%인데 반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38%이기는 하나[4] 이는 여전히 미국(18%), 일본(19%), 호주(21%), 독일(24%), 캐나다(25%) 등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게인 소프트웨어 코리아 2020 캠페인’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015년 현재 38%에서 20%대로 낮출 것을 계획하는 등[6]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저작권 존중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관리자 교육의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정착으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고자 하는 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이유들로는, 처벌의 심각성을 미처 충분히 깨닫지 못하거나, 본인만 불법복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만한 생각, 물리적 재화의 이동과 달리 디지털 공간 고유의 특성상 개인의 저장 공간으로 이동해 온 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무지, 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인식의 부족, 값비싼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 지불 의지 부족 등을 들 수 있겠다.

결국 불법행위의 현장을 직접 감시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자체는 사용자의 윤리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윤리란 보편적으로 “어떤 사회 내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사람이 행하는 사회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 사회적 행태에 대한 윤리적 지침은 사회구성원이 수용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윤리는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동일한 상황 하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판단이나 의사결정 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교육, 성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으나 개개인의 윤리적 또는 철학적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확고한 윤리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불법복제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수록 불법복제행위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8][9]. 또한 박경자(2013)의 연구[1]에서는 조직의 윤리문화가 불법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10] 죄책감이 많을수록 불법행위가 억제되기도 함[11]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정보문화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영향력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정보윤리의식 고취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Forsyth[12]는 윤리적 성향(ethical orientation) 혹은 윤리적 이념의 두 차원으로 이상주의(idealism)와 상대주의(relativism)를 제시한 바 있다. 이상주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행동을 수용하는 정도이며, 상대주의는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는 없으며 개인에 따라 수용정도가 다르다는 논리를 수용하는 정도이다[13]. 이 양자의 입장은 개인의 윤리적 차별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비교적 빈번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대학 현장에서 그 복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주관적 규범, 불법복제 행위 적발 시 처벌의 위험성 등의 인과관계를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고, Forsyth가 제시한 윤리적 성향에 따라 인과관계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디지털 콘텐츠 활용의 용도 및 방법 등이 다양화되면서 콘텐츠 활용에 따른 불법복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의 태도와 불법복제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양산되었다.

불법복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1][10][11] 이러한 불법적 행동을 윤리적 의사결정에 기반하여 개인의 윤리의식 및 조직의 윤리문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법적인 관점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과 단속을 방법을 찾는 것이 유용함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술적 관점의 연구[14]에서도 불법복제 행위가 반복되거나 불법 사이트에의 빈번한 접속은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등의 감염으로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 다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는 등, 불법복제와 관련된 여러 행위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각적인 관점과 입장에서 탐색적으로 접근, 해결하고자 한다.

그 동안 이러한 인간의 특정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했던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사회심리학 분야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다[15].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어떤 행동도 그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이 이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16][17][18] 이 콘텐츠 사용자의 태도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개인의 태도는 행동에 대한 학습된 선호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로 인간의 구체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일조하지만,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요인이다. 주관적 규범을 통한 개인의 태도 변화는 구체적으로는 본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위의 준거집단에 대한 추종, 주위 사람들에 의해 이상적인 것으로 인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적 가이드라인의 수용, 그리고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해당 집단의 영향력 수용 등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19]. LaRose et al.[20] 등은 사회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파일다운로드행위의 영향요인으로 다른 파일공유자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요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Al-Rafee & Cronan[21]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에서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주관적 규범과 성과에 대한 인지적인 믿음, 감성적 믿음 등을 포함시킨 바 있다.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도 상품 기획·개발과 품질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 자체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불법복제행위에 따른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불법복제 행위사범에 대해 관용적 입장보다는 상당한 사례가 법적 관점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일반적인 불법행위 경우에서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산업에서도 불법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의 인지수준이 불법행위로부터의 이득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복제행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 또는 규제와 불법복제 행위 간에 뚜렷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22]도 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과 기본적인 윤리의식은 불법복제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복제의도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외에도 Forsyth[12]가 제안한 사용자의 윤리적 측면도 인과관계분석에 반영해보고자 한다.

Forsyth[12]는 개인의 윤리적 차별성을 측정하는 EPQ(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라는 척도를 개발하여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적 경향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상대주의에 따르면 모든 윤리적 기준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나 법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리적인가의 여부는 처해있는 상황의 성격, 해당 국가나 사회의 문화 또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상황에 따라 도덕적 규율은 위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도덕이나 법규는 어느 정도 무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대주의는 도덕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윤리문제의 인식을 방해하며,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 한편 이상주의자는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이타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해결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므로 윤리적 판단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가설의 설정

불법적인 인간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합리적 행동이론에 기초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이 이론에 불법복제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추가하고 H1부터 H5까지의 연구가설 검증은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제 [그림 1]에 제시된 연구가설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 연구가설의 요약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행동의도가 고취되며, 고취된 의도는 실제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이 이론을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의 태도와 불법복제 의도에 응용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1 :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는 복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합리적 행동이론의 핵심구성요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행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고[17][18][21], 불법적인 파일 다운로드행위에는 다른 파일공유자와의 상호작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20]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설을 설정한다.

H2 :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사용자의 복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사용자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정책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영향력 축소에도 기여하고 있다[25]. Sinha & Mandel[26]도 디지털 상품의 불법복제는 불법행위로부터의 이득 외에도 처벌과 같은 불법행위에 수반되는 위협의 인지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기존의 연구결과를 합리적 행동이론 틀에 반영하여 다음 두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처벌의 심각성은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 처벌의 심각성은 주관적 규범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기본 가설을 검증해 본 후 Forsyth[12]가 제시한 윤리적 이념 차원에 따른 집단 차이도 분석하고자 한다. Forsyth가 개발한 EPQ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주의와 이상주의적 경향 정도를 알아보는데 사용되어 왔는데, 기업환경에서의 윤리와 가치에 대한 준수 정도 비교[27], 국가 간 윤리문화차이 비교 등의 연구[13][28]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불법복제와 관련해서는 Al-Rafee & Cronan[21]의 연구가 선행요인으로 주관적 규범과 함께 마키아벨리적 성향을 도입한 바 있다. 마키아벨리적 성향이란 자기 이익을 위해 남들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윤리적 성향은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들을 상대주의적 경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한 뒤, [그림 1]을 구성하는 경로의 계수값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다음 가설을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H6 : H1부터 H5까지의 경로계수값은 상대주의적 경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4. 연구자료의 수집

4.1 설문항목의 개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증 데이터가 필요하여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대한 설문문항은 Chiou et al.[29], Taylor et al.[17], 김경희·김태웅[8]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였으며, 주관적 규범과 태도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제시한 Fishbein & Ajzen의 연구[15]를 참조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 복제상황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 항목은 Morton & Koufteros[18]와 김경희·김태웅[8]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윤리적 차별성을 측정하는 EPQ는 Forsyth[12]의 설문항목을 번역하여 사용한 박종민[30]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변수의 측정문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4.2 설문자료의 수집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대상자의 설문에 대한 접근성과 응답데이터의 수집용이성 제고를 위해 구글의 문서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5월과 9월 서울 소재

<표 1> 설문항목 내용과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요인명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표준적재치	크론바하알파	평균분산추출	복합신뢰도
태도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시각과 관념	수업과제나 보고서 작성시 참고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관심정도	0.755	0.732	0.65	0.86
		블로그나 홈페이지, 또는 SNS 작성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관심정도	0.872			
		파일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관심도	0.804			
처벌의 심각성	디지털 콘텐츠를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적발가능성과 처벌수위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음원, 만화 또는 영화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 사용시 적발가능성	0.843	0.826	0.59	0.88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나 음원, 만화 또는 영화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허락없이 복사시 고발당할 가능성	0.886			
		인터넷 공간의 콘텐츠 불법 복사 및 사용시의 적발가능성과 처벌수위	0.831			
		인터넷 공간의 콘텐츠 불법 복사 및 사용과정에서의 적발시 피해보상액 부담 정도	0.621			
주관적 규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관심수준과 인식	주위 친구나 지인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0.752	0.701	0.52	0.82
		주위 친구나 지인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무관심을 평계로 한 나 자신의 불법적 사용	0.692			
		주변 사람들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무시 정도	0.788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도	디지털 콘텐츠를 정당한 대가 지불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복제품의 구매 및 획득 의도	0.825	0.832	0.75	0.92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 복사 및 사용 의도	0.886			
		정품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무시 의도	0.859			

사립대학에서 사이버강좌를 수강 중인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업 게시판에 연구목적과 설문조사 URL을 올려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일반현황을 제외한 모든 설문문항은 리커트 척도(5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거한 후 총 295개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95명 중 남학생이 140명(47.5%), 여학생이 155명(5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2학년이 78명(26.5%), 3학년이 96명(32.5%) 그리고 4학년이 121명(41.0%)으로 나타났다.

5. 연구방법과 가설검증

5.1 설문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연구가설검증을 위해 PLS(partial least square) 기법을 사용하였다. PLS는 측정·구조모형에 대해 실증적 평가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법으로, 주요 연구요인 상호간 인과관계에 주된 관심을 둘 때 빈번히 활용된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 설문항목의 적재치가 표본 전체에서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신뢰도도 기준치인 0.7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 추출값도 0.5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어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표 제시를 생략했으나 평균분산 추출값의 제공근 값도 모든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절차를 수행하였다[22]. 검증 결과 <표 2>와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가설이 유의수준 5%에서 채택되었다. 설명력(R2)을 살펴보면 불법복제의도가 37%, 태도 28%, 주관적 규범 22%로 나타나 적정 검정력 기준인 1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에 대한 설명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3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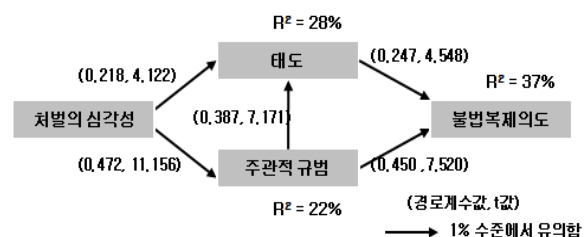
상대주의 경향이 주요 요인 및 요인 간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주의 경향을 측정하는 설문항목 10개의 값을 합산하여 이 값이 상위 40%에 해당하는 집단을 고상대주의 경향집단, 하위 40%에 해당하는 집단을 저상대주의 경향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중간 20%의 응답 자료는 집단 간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개별 요인별 집단 간 t-검증 차이분석 결과는 <표 3>에 수록되어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고상대주의 집단의 평균값은 요인에 관계없이 모두 저상대주의 집단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요인의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의 경우에만 저상대주의 집단이 고상대주의 집단에 비해 윤리적으로 다소 바람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 집단별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개별 설문항목의 적재치가 표본 전체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t값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신뢰도 역시 모두 0.7 이상이고, 평균분산 추출 값도 기준치인 0.5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구성개념 간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판별타당성도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의도와 태도 및 주관적 규범에 대한 설명력(R2)도 모두 적정 검정력 10%를 상회하고 있어 모형에 대한 설명력도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2> 가설 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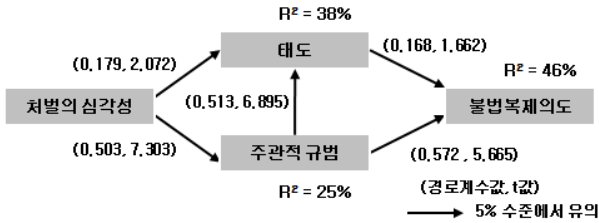
경로	경로 계수	t값
H1 : 태도 → 불법복제의도	0.247	4.548
H2 : 주관적 규범 → 불법복제의도	0.450	7.520
H3 : 주관적 규범 → 태도	0.387	7.171
H4 : 처벌의 심각성 → 태도	0.218	4.122
H5 : 처벌의 심각성 → 주관적 규범	0.472	11.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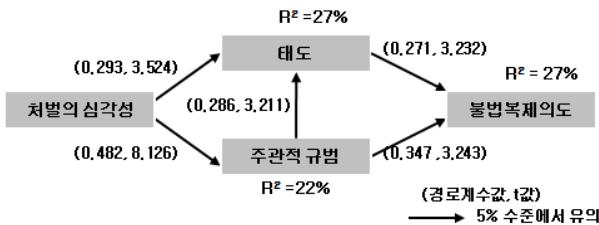
<그림 2>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표 3> 요인별 집단별 평균값 및 차이분석

요인	고상대주의 경향	저상대주의 경향	차이에 대한 t값	p값
불법복제의도	3.49	3.45	0.42	0.68
태도	2.89	2.62	2.70	0.01
주관적 규범	3.32	3.27	0.52	0.60
처벌의 심각성	2.86	2.69	1.73	0.08



<그림 3> 고상대주의 집단의 가설검증 결과



<그림 4> 저상대주의 집단의 가설검증 결과

집단에 따라 경로계수값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은 Keil et al.[31] 등이 적용한 경로차이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5개의 경로계수 모두가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H6은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집단간 차이분석

경로	고상대주의 경향	저상대주의 경향	차이에 대한 t값	차이 여부
H1 : 태도 → 불법복제의도	0.168	0.271	9.28	유의
H2 : 주관적 규범 → 불법복제의도	0.572	0.347	18.29	유의
H3 : 주관적 규범 → 태도	0.513	0.286	23.68	유의
H4 : 처벌의 심각성 → 태도	0.179	0.293	11.47	유의
H5 : 처벌의 심각성 → 주관적 규범	0.503	0.482	2.80	유의

6. 결론

본 연구는 합리적 행동이론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추가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Forsyth[12]가 제시한 상대주의 성향 정도에 따른 집단 간 경로값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선행요인은 태도(H1)와 주관적 규범(H2)이다. 태도(경로계수 = 0.247, t값 = 4.548)와 주관적 규범(경로계수 = 0.450, t값 = 7.520)은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Taylor et al.[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에서 태도(H3)로 이어지는 경로계수 값도 0.387(t값 = 7.171)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도도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주관적 규범보다는 그 영향 정도나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면 태도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태도(H4)와 주관적 규범(H5)의 선행요인으로 설정한 처벌의 심각성은 계수값이 각각 0.218(t값 = 4.122), 0.472(t값 = 11.156)로 p값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디지털콘텐츠 복제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의 심각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기대되는 금전적 이득이나 재미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고상대주의 집단과 저상대주의 집단 간의 경로계수 비교결과를 보면, H1(태도 →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도)과 H4(처벌의 심각성 → 태도)의 경우 저상대주의 집단의 경로계수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개 가설에서는 고상대주의 집단의 경로계수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유의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 태도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개선될 때, 콘텐츠 사용자들이 느끼는 침해의도의 감소비율은 저상대주의 집단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태도의 변화폭이 크지 않아도 저상대주의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침해의도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태도와 처벌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가 같은 비율로 변화할 때 실제적으로 침해의도가 변화하는 비율은 저상대주의 집단이 고상대주의 집단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다. 윤리적 경향에 관계없이 저작권 관련 교육의 효과가 태도에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면 행동이나 의도의 긍정적 변화정도는 저상대주의 경향을 보이는 학생집단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그 효과는 고상대주의 집단이 더 높다. H2(주관적 규범 →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의도)와 H3(주관적 규범 → 태도)의 경우 고상대주의 집단의 경로계수값이 저상대주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그리고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저작권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주관적 규범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정책적 파급효과는 고상대주의 집단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만큼 고상대주의 집단은 주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이다. 처벌의 심각성이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정도도 고상대주의 집단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8]에 의하면 상대주의적 경향이 높은 나라일수록 상거래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상대주의 경향은 도덕적 긴장감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보사회에서의 윤리적 의식이 제고된다면, 주관적 규범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쉽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고상대주의 집단이다. 저상대주의 집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 정도는 고상대주의 집단에는 미치지 못한다. 고상대주의 집단은 처벌의 심각성과 같은 요인이 태도를 통해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저상대주의 집단보다 낮다. 처벌의 심각성에서 태도로 연결되는 경로계수의 값이 저상대주의 집단은 0.293인데 반해 고상대주의 집단은 0.179에

불과하다.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태도에 미치는 우려감도 고상대주의 집단은 저상대주의 집단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되지 못했으나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방지 관련 교육효과도 개인의 윤리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추가한 심도 깊은 연구모형의 개발과 함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도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박경자 (2015).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이 불법복제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489-499.
- [2] Chiang, E., & Assane, D. (2002). Software copyright infringement among college students. *Applied Economics*, 32(2), 157-166.
- [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72802100960718001
- [4] <http://www.fnnews.com/news/201512171752361060>
- [5] BSA 2014 Global Software Survey: The Compliance Gap.
- [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26328>
- [7] 김호정(2005).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이 공직자의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9(4), 125-148.
- [8] 김정희, 김태웅(2013).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6(1), 63-71.
- [9] Cheung, W-L, & Prendergast, G.(2006). Buyers' perceptions of pirated products in China. *Marketing Intelligence & Planning*, 24 (5), 446 - 462.
- [10] 김광용(2004). 윤리적 의사결정 관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1(4), 48-86.
- [11] Holm, H.J.(2003). Can economic theory explain piracy behavior? *Topics in Economic Analysis & Policy*, 3(1), 1-15.
- [12] Forsyth, D.R.(1980). A taxonomy of ethical

- ide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75 - 184.
- [13] Barnett, T., Bass, K., Brown, G., & Hebert, F. J.(1998). *Ethical ideology and the ethical judgments of marketing professional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 715-723.
- [14] Higgins, G. E., Fell, B. D., & Wilson, A. L. (2007). Digital piracy: Assessing the contributions of an integrated self-control theory and social learning theor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riminal Justice Studies: A Critical Journal of Crime, Law, & Society*, 19, 3-22.
- [15] Fishbein, M., & Ajzen, I. (2010). Predicting and changing behavior: The reasoned action approach. New York, Psychology Press.
- [16] Cronan, T. P., & Al-Rafee, S. (2007).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pirate software and med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78(April), 527 - 545.
- [17] Taylor, S. A., Ishida, C., & Wallace, D. W. (2009). Intention to engage in digital piracy :A conceptual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11(3), 246-262.
- [18] Morton, N. A., & Koufteros, X. (2008). Intention to commit online music piracy and its anteceden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5, 491 - 512.
- [19] Cheung, C. M. K., Chiu, P-Y., & Lee, M. K. O. (2011). Online social networks: Why do students use facebook? Social and humanistic computing for the knowledge socie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4). 1337-1343.
- [20] La Rose, R., Lai, Y., Lange, R. et al. (2005). Sharing or piracy? An exploration of downloading behavior.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1), 1-22.
- [21] Al-Rafee, S., & Cronan, T. P. (2006). Digital piracy: Factors that influence Attitude toward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63, 237-259.
- [22] Bagchi, K., Kirs, P., & Cerveny, R. (2006). Global software piracy: Can economic factors alone explain the trend? *Comm. ACM* 49(7), 70-75.
- [23] Wingrove, T., Korpas, A., & Weisz, V. (2011). Why were millions of people not obeying the law? Motivational influences on non-compliance with the law in the case of music piracy. *Psychology, Crime & Law*, 17(3), 261-276.
- [24] Winter, S. J., Stylianou, A. C., & Giacalone, R. A. (2004).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ceptability of unethical information technology practice: The case of Machiavellianism and ethical ideology. *Journal of Business Ethics*, 54, 279-301.
- [25] Moores, T., & Dhaliwal, J. (2004). A reversed context analysis of software piracy issues in Singapore. *Information & Management*, 41, 1037 - 1042.
- [26] Sinha, R. K., & Mandel, N. (2008). Preventing digital music piracy: The carrot or the stick? *Journal of Marketing*, 72(1), 1-15.
- [27] Karande, K., Rao, C. P., & Singhapakdi, A. (2002). Moral philosophies of marketing managers: A comparison of American, Australian, and Malaysian culture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6, 768 - 792.
- [28] Forsyth, D. R., & O'Boyle Jr., E. H. (2011). Rules, standards, and ethics: Relativism predicts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the codification of moral standard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0, 353-361.
- [29] Chiou, J., Huang, C., & Lee, H. (2005). The antecedents of music piracy attitudes and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57(March), 161 - 174.
- [30] 박종민 (2003). EPQ 척도를 이용한 부당표시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연구. *광고연구*, 58,

81-114.

- [31] Keil, M., Tan, B.C.Y., Wei, K-K., Saarinen, T., Tuunainen, V., & Wassenaar, A. (2000). Cross-cultural study on escalation of commitment behavior in software projects. *MIS Quarterly*, 24(2), 299-325.

김미량



1987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학사)
1989 Lehigh University 대학원
교육공학과(이학석사)
1998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박사)

1999~현재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기반 교수-학습환경 설계·개발,
디지털 콘텐츠, 이러닝, 국가정보화

E-Mail: mrkim@skku.ac.kr

김태웅



1978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문학학사)
1982 Indiana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86 Purdue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박사)

1988~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관심분야: 디지털 콘텐츠, 이러닝, 공급망관리

E-Mail: tukim@skku.ac.kr